

2020년 2월 9~11일

## 2020 평창평화메시지<sup>1</sup>

우리는 공포와 폭력이 없고,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로 결의한다. 평화 없이 지속가능발전이 있을 수 없고, 지속가능발전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다.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전문 발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1. 2020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40여 개국에서 온 1000명 이상의 인원이 2020 평창평화포럼(PPF 2020)<sup>2</sup>에 참석했다. PPF 2020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 1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에 열린 첫 평창평화포럼의 성공을 이어갔다. PPF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논의의 글로벌 플랫폼이다.
2. PPF는 “70 Years Is Enough”이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 한국전쟁 발발(1950년 6월 25일) 70주년이라는 배경 속에서 2018 평창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긴급성이 포럼의 컨셉과 실행을 뒷받침했다. PPF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써,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명시된 평화, 정의, 발전 목표의 지속에 대한 국제 의제 및 약속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연결시켰다<sup>3</sup>. 우리는 스포츠가 지속가능발전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정했다.
3. 평창평화포럼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 추구 노력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평창평화정신은 이러한 커다란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용기, 희망, 결의를 조명했다. 평창의 메시지는 평화와 정의에 대한 세계인들의 약속과 이니셔티브를 보여준다.

---

1 **2020 평창평화메시지**는 2020 평창평화포럼 시민사회 참가자들의 논의 결과 요약본이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특수성과 요건을 감안하여, 2020 평창평화메시지가 촉구하는 모든 조치 항목 혹은 (개수에 상관없이) 일부 조치 항목에 따라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된다.

2 [www.ppf.or.kr](http://www.ppf.or.kr)

3 <https://unsdg.un.org/2030-agenda>

4.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1953년 7월 27일의 휴전 협정을 영구히 대체할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로 열린 남북한 및 미국의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평창과 강원도가 수행했음을 지지하고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2020 평창평화포럼은 한반도에서 정의롭고 견고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대해 계속적 지지를 표명한다.
5. 우리는 시민사회가 참여했던 국제회의의 유산을 인정하는 포럼으로써 출발했다. 이러한 유산에는 1999년의 헤이그평화회의, 21세기 유엔 강화를 위한 밀레니엄 NGO 포럼<sup>4</sup>(2000년 5월 22일~26일, 뉴욕), 국제 시민사회 주간<sup>5</sup>(2019년 4월 8일~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과 74차 유엔 총회 전날 저녁에 개최된 국제시민회의(the People's Assembly)<sup>6</sup>(2019년 9월 24일~25일, 뉴욕) 등이 포함되며, 이들 회의는 정의, 평화, 인권 및 지속가능발전의 성취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시했다. 2020 평창평화포럼의 메시지는 ‘2019 평창평화선언-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종전 및 평화 보장’과 2019년 2월 11일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속적 평화 결의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6. 올해의 PPF는 평화구축과 군축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결하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목표들 각각의 개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결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인권과 지구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 또한 PPF에서 강조되었다. PPF 2020은 분쟁 혹은 평화의 상황 속 종교의 역할을 감안할 때, 평화를 추구함에 있어 종교적/초종파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7. PPF는 국가 포퓰리즘과 일방주의가 증대되어 다자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이로 인해 기후 위기 및 사람들의 강제 이주, 인구의 대이동과 같은 전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유엔의 협약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약속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우리는 1945년의 유엔 헌장과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에 정의된 가치, 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는 다자주의를 촉진하는데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약속을 재확인한다.
8. 이를 고려하여, PPF 2020은 하기의 관심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들 관심분야와 관련된 가능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4 [http://www.sefidvash.net/rcgg/htms/mfd\\_ing.htm](http://www.sefidvash.net/rcgg/htms/mfd_ing.htm)

5 <https://civicus.org/icsw/>

6 <https://gcap.global/wp-content/uploads/2019/10/Peoples-Assembly-Declaration-2019.pdf>

9. 우리는 평창, 강원도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2018평창 기념재단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 평창평화메시지에는 PPF 2020의 개최정신이자 추구방향인 하기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해왔고, 평창평화포럼에서 3일 간의 집중적인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참가자들의 관점과 약속을 담았다.

- A.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
- B.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에 대한 약속의 실천
- C. SDG 16+에 대한 책임과 행동의 가속화
- D. UN 2030 의제에서 재확인된 다자주의
- E. UN 2020 이니셔티브: UN 75주년
- F. 스포츠, 평화와 SDG
- G. 평화, 군축과 SDG

10. 우리는 회원국, 유엔 기구, 다자 회사, 기여자, 민간 부문, 싱크 탱크, 연구 기관 및 전 세계인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인권의 완전한 보호, 불평등의 해소, 평화 추구하고 평화의 번성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행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A.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

11. PPF 2020은 평화는 한민족의 분명한 염원이자 인간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계속적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국제사회, 정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한국전쟁의 종식 및 당사국들 간의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한 조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한다<sup>7</sup>.

12.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현재의 휴전 협정이 평화로 대체되면 한반도에 안정과 안전 및 번영의 모멘텀이 촉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남북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정의롭고 견고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7 이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은 평화 협정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for a Peace Treaty)(<https://koreapeacetreatyncck.wordpress.com/>)와 Korea Peace Now Campaign(<https://koreapeacenow.org/>) 등이 있다.

13. 우리는 2019년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30일에 판문점 DMZ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확실하고 긴급한 후속 조치들을 정상들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의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4. PPF 2019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속적 평화 결의안'을 상기하며, 우리는 정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평화논의를 재개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중단된 평화프로세스가 동북아시아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비경쟁 및 경쟁구도로 후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 B.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약속의 실천

15. 2015년 9월 25일 UN의 193개 회원국은 세계의 변혁을 위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했다. 이 의제는 남반구와 북반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를 실천하고 성취하는데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와 관련 핵심의제의 원칙 중 하나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의제가 도달하게 만들 책임을 의미하는 "Leave No One Behind(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평등, 평화, 기후 변화에서부터 빈곤, 양성평등 및 기아의 종식 등 가장 긴급하고 만연한 전 세계 공동의 도전과제를 다룬다.
16. 세계인들은 모든 국가에서 매일 불평등, 빈곤, 폭력, 차별, 군국화, 환경파괴 및 인권 약화 등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예사로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후 변화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전 세계 아이들과 청년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7.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는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 있지 않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더욱 더 투자해야 한다. 2015년 기후에 관한 파리 협정, 2018년 환경 인권에 대한 Escazu 협약<sup>8</sup>, 2018년 재해위험경감 센다이 강령<sup>9</sup>, 유엔의 여성, 평화, 안보

<sup>8</sup> <http://bit.ly/2SUD1HX>

<sup>9</sup> <http://bit.ly/2urvNmR>

의제(UN SCR 1325<sup>10</sup>) 및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등의 협약들에 대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각국 정부가 시급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8. 국제 평화의 날 캠페인<sup>11</sup>과 2020년 9월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행동 캠페인<sup>12</sup>을 통해 마련될 지속가능발전목표 글로벌 행동 주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sup>13</sup>이 주최하는 글로벌 행동 주간 동안의 Stand Together Now 캠페인<sup>14</sup> 을 통한 무브먼트와 기관, 시민사회와 개인은 모두 평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 등을 위해(집회, 시위 및 기타 다른 개입의 형태로) 집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국 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과 평화 보장이라는 중요한 선행과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압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결국 현지, 국가, 지역적 수준의 ‘시민회의(People’s Assemblies)’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20년 9월 유엔에서의 글로벌 모빌라이제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다.
19. 이러한 시민회의(People’s Assembly)’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 경험, 정책, 아이디어, 해결책, 참여를 촉진하고, 주요 유엔 프로세스, 특히 UN@75 Dialogue와 Beijing+25 프로세스 등을 알리며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UN 75주년을 넘어, 정의롭고, 책임을 지며,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자체계를 지지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 ”유엔 2030 의제의 정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자주의의 혜택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생략)...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사회 정의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 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실제적이고 정책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sup>15</sup>

### C. SDG 16+의 책임과 행동의 가속화

---

10 <http://bit.ly/2HXCbVP>

11 <https://internationaldayofpeace.org/>

12 <https://act4sdgs.org/>

13 <https://action4sd.org/>

14 <https://www.standtogethernow.net/stand-together-now/>

15 UN 75주년 CoNGO 선언 23항 참조(유엔과 자문 관계에 있는 비정부기관 회의)(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http://bit.ly/327uFkv>)

21. 분쟁, 불안, 시스템적인 부당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화 및 불평등에 대응하는 빠른 행동과 장기적인 상황적 투자를 통해 포용을 촉진하고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다.
22. 우리는 SDG 16+의 책임과 행동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SDG 16에 관한 시민사회 로마 선언<sup>16</sup>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들이 로마 선언에서 제시된 모든 권고사항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반드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사람들부터 평화와 정의 및 거버넌스의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SDG 16+ 성취를 향한 진전은 여전히 고르지 않고, 궤도에서 벗어나 있으며 많은 경우 합의된 약속을 어기고 있다. 국제사회는 통합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방식으로 SDG 16+를 이행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분쟁과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약속의 규모를 더 확대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조성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공간을 보호하고 확장하며, 보다 폭 넓은 모든 형태의 인권 유린과 부당함을 경감할 것이 요구된다.

#### D. UN 2030 의제에서 재확인된 다자주의

24.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부와 권력 및 자원의 불평등을 경감시키는 다자주의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5. 다자주의는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수준에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와 정책적 약속 및 행동 계획에서 표명된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국가적 책임에 따른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다자주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특히 기업의 치외법권적 책임을 존중한다. 다자주의는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규제적 역량 및 법적 접근성에 있어서 공공 분야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지한다.

이러한 원칙은 개발, 재정, 법적 정책 전반에 걸친 국가 정책의 주권적 영역을 보장하고, 국가들 간 그리고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등, 정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며, 생태적 한계를 존중한다.

---

16 <https://tapnetwork2030.org/romedeclaration/>

26.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행동 계획과 정책 권고사항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 원칙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정책 아키텍처를 재구성해야 한다.
27. 불평등을 영구히 하는 상호 강화적 글로벌 시스템은 가부장제로 인한 권력의 불균형, 군국주의, 금융화 비민주주의적 거버넌스 및 반대하는 입장의 범죄화 등을 통해 번성하며, 이는 경제 협정 및 파트너십이라고 알려진 무역 투자 협정, 지적재산권 체제, 규제 없는 디지털화 등으로 더욱 심화된다.
28. 다자주의에 대한 장애물의 극복과 인권, 평화, 정의에 근거를 둔 국가적 책임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
- 공정하고 일관적인 세계 경제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공동의 세금 협약과 당국
  - 분쟁 해결 군국화의 근절
  - 여성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가부장제 해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 장애물의 극복과 협력 촉진은 반드시 정의롭고 책임 있는 다자주의 체계의 선봉에 두어야 한다.

### E. UN 이니셔티브 2020:17 유엔 75주년

29. 우리는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에 대한 복합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사회 지지자들은 유엔의 체계가 인간과 지구가 맞닥뜨린 많은 도전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며, 공격을 받고 있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유엔의 체계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여 유엔이 이번 세기에 도래한 도전과제에 응전하고 지난 세기의 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30. 유엔 2030 의제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력을 이루고, 넓은 의미의 평화와 군축의 의제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엔이 필요하다. 더 강력하고, 변혁적이고 다자적인 체계의 지지자들은 유엔

17 <http://un2020.org/>의 UN2020 Initiative 참조

75주년이, 유엔 75주년 정상회의를 통해, 1945년 유엔 헌장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약속에 대해 해당 정부들의 책임을 묻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의미 있고,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국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시하며, 유엔 75주년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위해 개최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31. 시민사회의 입지가 좁아지고, 접근성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엔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의미있는 매커니즘을 만들 것을 촉구 및 요구한다. 또한, 유엔 체계 내에서 시민사회의 협의와 대표성이 의미있고, 분명해지며, 강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유엔 의회(UN Parliamentary Assembly)<sup>18</sup> 및 세계 시민 이니셔티브(World Citizens Initiative)<sup>19</sup> 등의 대담한 제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F. 스포츠, 평화와 SDG

32. 우리는 분쟁 지역에서의 대화와 화해를 용이하게 하고 인간존중을 강화하며 중재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와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37항<sup>20</sup>에 강조된 여성, 청년 및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있어 스포츠가 점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 이니셔티브 및 평창2018 기념재단의 유산 프로젝트를 기린다.
33. 우리는 정부, 운동선수들, 스포츠 조직 및 시민사회가 모든 올림픽 대회, 특히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그 이후의 올림픽대회에서 올림픽 휴전의 비전을 고취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평화, 가치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 H. 평화, 군축과 SDG

34.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려는 유엔의 주된 목표를

---

<sup>18</sup> <https://en.unpacampaign.org/>

<sup>19</sup> <https://www.worldcitizensinitiative.org/>

<sup>20</sup> 스포츠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조력자이다. 우리는 스포츠가 관용과 존중의 촉진을 통해 개발과 평화의 실현에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스포츠가 건강과 교육, 사회통합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뿐 아니라, 여성과 청년, 개인과 공동체의 권익신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37 페이지).



재확인하며, 정부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 관할의 수용 등을 포함하여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유엔 헌장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상기에 언급된 유엔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5.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평화와 군축이 요구된다. 모든 군사행동은, 평화로운 시기나 전쟁의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상당히 기여한다. 무기의 생산, 확산 및 사용은 사회 구조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무너뜨리며, 경제 사회 활동의 리스크를 증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의 건강 및 삶과 생활을 위협한다. 게다가, 군비증강과 군사적 위협의 주된 이유는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후 변화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막는다.
36. 우리는 공동의 미래 보장을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군축 의제(2018)를 환영하며 해당 의제가 제시하는 평화, 군축,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연결성을 환영한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 군축 의제, 특히 유엔 100주년인 2045년까지 핵무기의 제거라는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37. 우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 및 사이버 분쟁 등을 포함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그리고 상비군의 점차적인 축소와 해체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원을 위한 군사비의 재분배를 약속할 수 있도록 정부들이 관련법 조항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8. 우리는 평화, 군축, 민주주의, 인권, 기후행동을 좌절시키고 있는 화석 연료와 무기의 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시민사회, 정부, 금융 기관이 화석 연료, 핵무기 및 기타 군사 산업을 처분하고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원칙에 따라 재편된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한다.
39. 우리는 여성, 평화, 안보(WPS)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청년,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0호, 청년,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19호의 완전한 이행과 청년,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74/64호, 특히 의사결정기구에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 보장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평창평화의제 (PCAP) 2030

40. 결론적으로, 우리는 평창평화정신에 의거하여, 평화, 군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강화하는 아이디어, 제안, 이니셔티브

등의 집합체인 평창평화의제 등을 통해 상기의 비전과 임무를 약속한다.

평창  
2020년 2월 11일

[PyeongChangPeace2020@gmail.com](mailto:PyeongChangPeace2020@gmail.com)

[www.PPF.or.kr](http://www.PPF.or.kr)